

# 통 문장 암기와 짝 활동을 통한 한국어말하기 향상 융합전략

류자미<sup>1</sup>, 오성록<sup>2\*</sup>

<sup>1</sup>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sup>2</sup>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 A Convergence Strategy of Improving Korean Speaking Skills through Memorizing Whole Sentence and Pair Works

Ja-Mi Ryu<sup>1</sup>, Seong-Rok Oh<sup>2\*</sup>

<sup>1</sup>Dept. of Korean Teacher, Dongshin University

<sup>2</sup>Dep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요약** 이 논문에서는 외국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통 문장암기방법과 짝 활동이 말하기능력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먼저 통 문장암기방법에 대한 효과를 다루고 있는 논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학습자의 활동은 주로 외국학생끼리 짝 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 활동은 수업 시간에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빈도를 높이고자 시도했고, 동시에 학습자간에 지속적인 학습을 서로 돕도록 의도했다. 이 융합교수접근법에 힘입어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한국어 활용빈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각 짝을 중국학생과 베트남학생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외국어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게하는 동기부여나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문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이 융합교수법에 대해 참여 학습자 거의 모두가 만족했음을 보여 주었다.

• **Key Words** : 융합, 커뮤니케이션, 연습, 암기, 짝 활동, 통 문장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whether foreign students' Korean speaking skills can be increased or not through memorizing whole Korean sentences and pair works. First, the advance studies on the effects of this teaching method were surveyed. Second, the activity of this study was mainly pair works with foreign students, so how to do this activity was described. This activity was intended to help each other with keeping study and correcting errors while drilling in class. Thanks to this convergence teaching approach the students' frequency of target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w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their motivation and energy were brought from this activity. They have to do communications with each other because each pair was made of one Chinese and one Vietnamese. They have no choice but to use Korean in communication. Finally,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also showed that almost all of the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is convergence teaching approach.

• **Key Words** : convergence, communication, drilling, memorizing, pair work, whole sentences

\*Corresponding Author : 오성록(osr3349@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5, 2016

Revised March 31, 2016

Accepted April 05,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 1. 서론

인간의 기억력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경이로움의 한 예로, 예전에 들었던 음악을 듣거나 예전에 뿌렸던 향수를 맡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음악과 향수가 함께 지니고 있는 다른 기억까지 떠올리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학습을 하는 데에도 기억력이 매우 중요하다. 모국어도 그렇지만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는 기억력이 외국어 실력과 비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학습에 투자한다고 해서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큰 학습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모두 이해하기까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외국어 학습자가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Reigeluth(1983)은 암기의 목적은 학습한 내용을 대부분 자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라고 한다[1]. 김재복 외(1997)는 암기는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이 기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준 높은 학습이 불가능하며,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2].

본 연구는 D대학교에서 정해진 기간, 일반적으로 1년간 진행되는 한국어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외국어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 암기라는 전제하에, 통문장암기를 시행하였다. 단기간에 한국어습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학습자들에게 이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였고, 인터뷰를 시행하여 학습자들의 정의적인 요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유학생으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간섭현상이나 문화차이 등의 외적인 요인 때문에 문장 표현이나 발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 연구결과를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에 융합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성록 외, 2013)[3].

### 2.1 기억의 유형

황인희(2010)는 인간의 기억을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먼저 새로운 정보는 감각기억으로 입력이 되고, 이곳의 정보가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어 발화 등을 통해 표출 된다고 한다[4]. 우지윤(2013)은 인간의 기억을 감각기억(sensory memory)과 작업 기억(working memory)으로 나누었다[5]. 새로운 정보는 감각기억으로 저장되어 이곳에서 다시 일부의 기억이 작업 기억을 거쳐 장기기억이 된다. 정보의 기억은 발화 등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 장기기억의 역할은 정보를 긴 시간동안 기억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장기기억은 저장 역할 외에 삭제, 검색을 하는 활동이 있다. 즉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며,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장기기억에 저장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저장되는데 정보의 저장은 반복적인 암기연습이 따른다.

한편, 기억을 크게 일시적인 것과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기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더 나아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기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어떤 경험에 즉각적으로 뒤따라 생기는 기억을 1차 기억이라고 하고, 그 경험을 나중에 회상할 때의 기억을 2차 기억이라고 한다 (William James, 1890)[6].

#### 2.1.1 기억과 감정

우리는 기억을 오래 남기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기도 한다. 하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은 오히려 쉽게 잊지 못하고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에 대해 James L. Mcgaugh(2012)는 기억을 오래가고 강하게 남게 하는 방법이 반복에 의해서만은 아니라고 말한다[7]. 좋은 경험이란 좋지 못한 경험이란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한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는 경험은 기억이 잘 된다. 반복과 정서적 각성은 우리가 기억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들에 대한 기억은 빨리 쇠퇴한다. 충격적인 경험은 오래 지속되지만 그 자세한 사항들은 점점 기억에서 멀어진다. 각인효

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쇠퇴하게 된다. 하지만 끄찍한 외상적 기억은 기억에서 쇠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2.1.2 스트레스와 기억

학습을 할 때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가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스트레스는 학습을 방해하기도 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약간의 스트레스는 기억을 응고화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James L. Mcgaugh(2012)는 쥐가 전기 충격을 받게 되면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쥐의 경우는 코르티코스테론)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기억 응고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에피네프린이 기억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데, 훈련 직후에 주사를 투여하면 쥐의 기억에 효과가 크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다. 주사를 훈련 직후에 투여한 효과와 시간이 흐른 뒤의 효과는 다르다는 결과이다. 즉 학습 경험 후 약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투여한 것이 그 경험에 대한 더 강한 기억을 형성시킨다는 연구 결과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편도에 작용하여 많은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억 응고화를 조절한다[7].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학습현장에서도 약간의 학습 스트레스는 필요불가결하다고 본다.

2.2 반복 학습의 필요성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본 연구에서 반복 학습이라는 것은 같은 텍스트를 일정 기간에 간격을 두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한 지식이 반복학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습자의 뇌는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지만 그만큼 그 정보는 뇌에서 빠져나간다. 새로운 정보를 재구성하여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정보는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학습자에게 계속된 학습은 어려움을 낳게 되고, 따라서 학습한 지식을 다시 기억해내는 회상력도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렵게 되고 학습에 대한 흥미마저 없어지게 되어 결국 외국어학습을 중단하게 된다.

권오현(2005)은 반복학습이 많은 학습 집단이 문제 해

결 능력이 좋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의 학습자들은 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하고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8]. 반복학습과정은 먼저 학습자가 스스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는 것으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암기 학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응고화 되기 위한 학습이다. 김경란(2010)은 망각은 연습의 정도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는데 연습의 첫 단계에서는 망각의 정도가 심하지만 연습이 많아질수록 망각의 정도는 줄어든다고 한다[9]. 권오현(2005)은 시간을 가지고 반복학습을 하면 잊어버리는 양이 감소하여 학습 축적량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과 실수가 많은 부분은 반복학습을 통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2.1 말하기 학습에서의 암기 기능

암기는 단순히 외우는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한 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재복 외(1987)는 이해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암기 학습은 더 나은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능일 수 있다고 한다. 암기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며 가장 기본적인이라고 말한다. 이자원(1994)은 암기공정론자들의 예로 'I love you.'라는 문장이 언어사용 시 큰 효과를 본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I love you.' 라는 문장이 암기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언어반복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문장의 의미와 연관된 경험을 몸으로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I love you.'의 표현이 잘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10]. 황인희(2010)는 통 문장 암기 학습법을 사용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문장 유형문항 듣기능력의 차이를 비교했을 시 통 문장 유형 문항의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김경란(2010)은 영어 학습에서 암기의 비중은 상당하며,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환경의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암기학습 없이는 영어 정복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정명진(2004)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문장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영어 듣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문장암기를 통하여 친숙한 문장과 구문을 접하게 되어 평가 시에도 긴장감을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어 듣기능력과 독해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학습 능력에 전이효과를 주

었다고 한다[11].

### 2.2.2 반복학습 후의 회상력

학습기간 후에도 기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회상한다는 것은 암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회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Tony Buzan(2010)은 학습 후의 회상력 패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학습이 이루어진 후 몇 분이 지난 뒤에 우리는 학습한 것의 대부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두 번째, 학습이 이루어진 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학습한 내용의 80%를 잊어버린다. 회상 곡선의 상승이라는 것은 기억력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회상 곡선의 하강을 막는 방법은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다[12].

복습의 기능은 과거의 학습이나 경험을 습득하여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여 기억을 응고화하는 것이다. 복습을 한 후 하루 동안은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Tony Buzan이 제시한 적절한 간격의 복습이 회상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시키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만약 한 시간 동안 학습을 했다면, 첫 번째 복습은 10분 후에 해야 하고, 두 번째 복습은 24시간 후에, 세 번째 복습은 1주일 후에, 네 번째 복습은 한 달 뒤에 복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한국어 말하기 학습전략과 효과

학습자들에게 문장을 외우라고 하면 학습자들 대부분은 아무런 절차 없이 텍스트 자체를 무조건 암기를 하게 된다. 이는 내용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암기에 매달려 학습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학습은 외우고 나서 짧은 시간에 잊어버리는 무의미하며 비효과적이다. 암기학습은 장시간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3.1 발음의 자연스러움

발음연습은 단계가 초급단계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능력(skill) 중에 하나이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 대부분은 모국어 간섭현상으로 인해 한국어 발음에 오류가 나타난다.

학습자들을 분석해 보면 중국학생들 경우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 그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면 ‘색깔’을 [색갈]로 읽는 것이다[13]. 베트남 학생들 경우 역시 발음 오류현상으로 경음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들 특유의 억양이 있었다. 예를 들면 문장의 대부분에서 첫 글자에 강세를 두었고, 문장을 구사할 때 높고 낮은 톤이 자주 반복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 발음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암기활동을 시켰다. 교사의 발음을 따라서 하는 반복 활동이 거듭됨에 따라 학습자들의 발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 3.2 암기연습 시 교정이 주는 긍정적 효과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모국어 간섭현상을 줄이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학습자들의 꾸준한 노력 없이는 모국어 간섭현상을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수업시간마다 학습자 한명 한명을 교사가 계속 교정하려고 노력했으나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수업시간에 함께 교정 받을 수 있고, 교사와 학습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암기연습을 도입했다.

통 문장 암기연습은 짝 활동(pair work)으로 이루어졌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 격일로 수업시간에 암기연습을 하도록 했다. 이 때, 교사의 발음 교정과 학습자들의 교정이 같이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은 길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잘 듣고 교정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사가 놓친 부분을 다른 학습자가 지적해 주기도 하고, 외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알려 주기도 하였다. 교정해주는 학습자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해주면, 교정 받는 학습자 외에 다른 학생들도 같이 들을 수 있어 학습효과가 높았다. 교정해주면서 학습 분위기 또한 달라졌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으나,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습 분위기는 매우 활발한 학습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 3.3 성취감

통 문장 암기 시 학습자들 대부분이 처음엔 암기학습을 힘들어 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습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눈을 감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 말을 더듬거나, 인상을 찡그리며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 틀릴까봐 불안해하는 모습 등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이 암기연습을 반복하고, 그 암

기한 문장으로 응용된 문장을 시도해보거나 다른 표현을 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오류는 재구성에 의한 말하기 때 모방에 의존한 재생단계의 말하기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 발생 자체가 자연스런 언어습득 과정이었다.

학습자들이 첫 번째 암기 연습을 할 때, 생각나지 않은 부분에서 교사가 단어를 자주 제시해 주었지만 암기 연습이 반복될수록 그런 현상은 줄어들었다. 모든 문장을 암기한 이후의 학습자들은 결과에 대해 잘했건 못했건 해냈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맛보는 모습이었다. 이 성취감은 수업 시간으로 연결되어, 암기를 달성하지 못한 학습자들에 비해 그들은 수업시간에 자신감에 차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법이나 문장의 의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감 있게 발표하거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암기한 학습자들은 문장구사능력, 문장작문능력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배웠던 것을 틀리지 않게 다시 사용했다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배웠던 내용을 다른 학습활동에서 접하게 되면 그들은 알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3.4 ‘잔소리꾼’ 역할이 주는 당근

Ian Ayres(2011)는 2007년 초 예일대학교 취업센터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줄 사람을 고용했다. 그 ‘잔소리꾼’은 Ian Ayres가 다섯 가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틀이나 사흘에 연속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처음에는 잔소리꾼이 이메일을 보내고, 또 지켜지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그를 찾아가서 잔소리를 하였다. 이런 잔소리로 그는 난생 처음 다이어리에 문제점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잔소리의 힘은 그에게 경찰관과도 같은 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14].

이러한 연구 결과의 토대로 학습자를 통 문장 암기 학습자와 파트너 학습자로 나누었다. 그리고 격일로 돌아가면서 암기를 하게 하였다. 암기 학습자는 처음에 잔소리꾼의 역할을 하는 파트너의 벌칙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암기를 해낸 학습자와 파트너들을 보면서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암기 학습자

가 암기를 하지 못했을 시, 비 암기학습자에게 잔소리꾼의 역할을 하게 했고, 못했을 시 파트너에게도 벌칙을 주었다. 또한 교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발음이 틀린 부분은 정확한 발음으로 교정 해 주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다음 암기 연습 때 틀리지 않으려고 작은 종이에 적어서 연습하거나 손바닥에 적어서 암기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4. 연구 내용 및 분석

### 4.1 연구 방법

학습의 흥미를 도모하고 암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텍스트는 짧은 동화로 선택하였다. 암기 이전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마인드 맵(mind map)을 이용하여 암기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쉽게 접근하게 하였다. 실험은 짝 활동으로 이루어지되 가능한 국적이 다른 학습자들로 짝을 만들었다. 실험은 총 열 번으로 이루어졌고, 두 명의 짝 중 암기학습자와 비 암기학습자(파트너 학습자)로 나누어 다음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였다. 모든 암기 학습이 이루어진 후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통 문장 암기법이 한국어 말하기 실력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였다.

반복된 암기 연습을 녹음하고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 수가 많지 않아 학생 개인별로 오류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다. 그리고 암기활동이 진행된 후 비교해보니, 대부분 여섯 번째부터 확연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학습자들은 반복이 거듭될수록 텍스트를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암기보다는 평소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말처럼 외워 말했다.

### 4.2 실험 대상

이 만족도조사와 인터뷰는 D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은 중국학생 8명, 베트남 학생 8명으로 총 16명으로 정하였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초급과 중급이었다. 즉, 한국어 능력 시험 2급과 3급을 보유한 학습자들이다. 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급 수준에 이르지 못한 기초단계의 학습자들에게 암기연습은 부담이 되고, 그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의 동화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15]. 한편 중

급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암기학습을 단순한 노동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4.3 만족도조사와 인터뷰내용 분석

<Table 1> Practice of memorizing whole sentences

	section	n(%)	total
practice of memorizing whole sentences	necessary	14(87)	16(100)
	not necessary	2(13)	

암기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암기과정을 겪은 이후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학습한 후에도 기억이 계속 연장되어 학습이 지속되는 효과를 냈다. 암기한 텍스트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체 한국어가 많다'며 통 문장 암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습자들이 암기 활동 이 후 교실에서 모국어보다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놀면서도 수업시간에 암기했던 한국어를 사용하고, 또한 상황에 맞게 의성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Table 2> Difficulty of practice of memorization

	section	n(%)	total
difficulty of practice of memorization	difficulty	13(81)	16(100)
	a little difficulty	3(19)	
	no difficulty	0(0)	

학습자들에게 암기는 암기의 양을 차치하고 암기자체가 싫고 어렵기 마련이다. 더구나 외국어 문장을 암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가 내 몸에 익혀져서 자연스럽게 발화하기까지는 더욱 힘든 일이다. 학습자들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 이유는 암기내용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Table 3> Fear of speaking of Korean

	section	n(%)	total
fear of grammar error speaking Korean	fear	11(73)	16(100)
	a little fear	4(27)	
	no fear	0(0)	

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수준이 아주 낮지도 높지도 않은 학습자들이다. 이 수준의 학습자들은 특히 한국어 말하기를 더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있으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말하기까지는 정의적 필터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서 과거에 배웠던 것과 동시에 학습하게 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되게 되어 말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 학습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암기학습이며, 이것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Change of the memorization practice

speaking	easy	a little easy	not easy	total
	15/94	1/6	0/0	16/100
change of pronunciation	better	a little better	not better	
	13/8	2/13	1/6	
confidence of speaking	yes	a little	no	
	14/8	2/13	0/0	

암기 연습이후 학습자들의 변화는 뚜렷해졌다. 먼저 한국어 발화능력이 좋아졌다. 암기연습 전 학습자들은 질문에 겨우 단답형으로 응했으나, 암기학습 이후 그들의 문장표현은 더 길어졌고 자신감에 차있었다. 학습자들이 말하기가 쉬워졌다는 반응은 단어만 외워서는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발음의 변화도 확연히 좋아졌다. 그 이유는 쓰기보다는 말하기에 중점을 둔 과정이었기에 학습자들이 말하기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교사 혼자만의 교정이 아닌 동료학습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발음교정을 해주었으므로 교정효과 또한 컸었다. 물론 동료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교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제2언어 학습자로서 발음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갖게 되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능력이 좀 더 나은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학습자들 모두 경음화 현상은 연습 이후 현저히 줄어들었다.

<Table 5> Partner's help

	section	n(%)	total(%)
partner's help	helpful	15(94)	16(100)
	not helpful	1(6)	

외국어학습은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는 집단 학습 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암기를 할 때 짝을 지어서 연습을 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학습자들이 파트너의 암기연습에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짝 역할이 강화 되면서 달라졌다.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암기연습을 할 때, 자기 파트너의 학습 진행 확인이나 교정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파트너에게 부담과 실망을 주기 싫어서 암기연습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기억을 응고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짝 활동은 학습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용하고 가라앉은 교실 분위기는 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활발해졌고, 학습자 간에 목표언어를 도구로 커뮤니케이션 양이 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5. 결론 및 제언

외국어 학습의 핵심은 암기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 시 암기력 자체의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함이 아니고 한국어 문장암기를 위해 반복적 연습이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한 번의 자극으로 암기할 정도까지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렵다. 듣는 것도 어려운데 어떤 내용을 듣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많은 연습, 즉 암기하는 수준의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는 목적 언어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짧은 시간 내에 목적 언어를 습득하고자 한다면 통 문장 암기가 권장할 만한 교수법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알아보았듯이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학습자가 반복학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특히 통 문장암기 학습효과가 매우 컸다고 증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통 문장암기’와 ‘짝 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학습방법을 융합하여 시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이 학습방법이 일시적인 기억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기억의 응고화가 이루어지는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 중에서 학습의 결과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반복을 많이 했다는 인터뷰 결과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암기의 긍정적인 면을 학습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짝 활동 훈련을 사용하였으며, 학습과정에서 실수(error)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와 파트너가 분담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낳았다[16].

이 연구의 한계는 지방소재 한 대학의 언어교육원 유학생 소수를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점과, 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중국과 베트남 두 국가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이 결과를 국내 전체의 유학생 한국어 교육의 방법론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REFERENCES

- [1] Reigeluth, C. M,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3.
- [2] Jae-Bok Kim, Yong-Eu Song, Ki-Ok Yun (translated), Bruce Joyce, MarshaWeil "Teaching Types", Seoul: Hyeongseong Publisher, 1987.
- [3] Seong-Rok Oh, Ja-Mi Ryu, "A Study on KSL A Teaching Strategy through Reading Fairy Tales: Using ESL and Schema Theory",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18, No. 3, pp. 169-190, 2013.
- [4] In-Hee Hwang, "The Effects of Memorizing Whole Sentences on English Listening Ability and Affective Domain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Ha U.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MA, 2010.
- [5] Ji-Yun Woo, "The Effects of Memorizing Whole Sentences on English Ability and Affective Doma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MA, 2013.
- [6] William James, "Principles of Psychology, Henry Holt and Company", New York. pp. 104-115, 1890.
- [7] James L. Mcgaugh, "Memory and Emotion", (co-translated by So-Hyeon Park, Moon-Soo Kim).

Seoul: Sigmappress, 2012.

- [8] Oh-Hyun Kwon, "A Study of Efficiency through Repetition Study from Each Type", Graduate School of Mathematics Education Koomin U., MA, 2005.
- [9] Kyeong-Lan Kim, "A Memorizing Model of Effective English Stud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ankook U., MA, 2010.
- [10] Ja-Won Lee, "Memorization - When & How",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ction of Treaties, Koomin U., MA, 1994.
- [11] Myoung-Jin Jeong, "Improving English by Memorizing Sentences",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 2004.
- [12] Tony Buzan, "Use your Memory" (Translated by Bong-Jung Kweon), Seoul: Businessmap, 2010.
- [13] Byung-ho Noh, "Error Analysis of Chines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Focus on Analysis of Vocabulary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31-142, 2015.
- [14] Ian Ayres, "Carrots & Sticks", Seoul, pp. 177-179, 2011.
- [15] Su-Ja Kang, "L2 Learners' Communication Strategies: A Data Convergenc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63-270, 2015.
- [16] Yun-Joo Kim, Yoon-Young Kim, Song-Mi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9, pp. 39-47, 2015.

저자소개

오 성 록(Seong-Rok Oh)

[정회원]



- 1989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문학석사)
- 1995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박사수료)
- 2006년 2월 : 전주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 한국어교육

류 자 미(Ja-Mi Ryu)

[정회원]



- 2014년 2월 : 동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원학과 (문학석사)
- 2011년 3월 : 동신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사

<관심분야> : 한국어교육, 중국어교육